

고려왕조의 정치구조와 지배세력

*고려 정치구조와 지배 세력의 형성과 변화:

호족연합정권=문벌귀족=무신정권=권문세족=신흥무인+신진사대부

- 건국초기 지방 유력호족세력과의 연합정권 형성
- 이후 고려건국의 공신, 지방호족출신의 관료, 6두품출신 출신 유학자 등이 중앙귀족으로 흡수,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관직을 차지, 폐쇄적인 지배세력 형성 (소수가문의 권력 독점과 귀족화=문벌귀족)
- 제도적 정치기반의 마련으로 초기 무반정치에서 문반중심정치로의 전환
- 문종대에 이르면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어느정도 확립(율령, 전제, 관제, 병제 등 완비)
- 문무 양반체제가 형성되나 문신중심의 국가운영체제 형성

- 특히 고려 전기 소수 가문의 문벌귀족 중심의 지배권력 구도가 심화
- 배경에는 결혼정책을 통한 왕실과의 혼인으로 왕실을 배경으로 한 구성원 중심의 지배권력 형성
- 외척세력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충돌 발생
- 이에 초기 왕실의 극단적 근친혼 형성

*고려왕실은 왜 근친혼을 하였을까

- 안정적인 권력기반 구축 및 왕실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근친혼
- 근친혼의 단서는 태조시기 마련, 호족연합정책의 후유증 해소 방편
- 시기마다 근친혼의 상황은 차이
- 태조 왕건은 29명의 후비와 부인을 두어 25명의 왕자와 9명의 공주
- 신라말 혼란한 정국을 정비하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전략으로 이루어 진 결혼정책의 결과(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 돌출)
- 태조는 후삼국 통일후 왕실의 힘이 분산되는 것을 우려
- 태조는 왕실의 결집과 왕권 강화를 위해 근친혼을 생각
- 왕실 근친혼은 광종의 혼인에서 시작
- 왕실 근친혼은 이종사촌간, 고종사촌간 등 7대 목종대까지 극도의 근친혼

- 그러나 현종 이후 왕실과 왕권 약화라는 정치적 환경이 왕실내 혼인보다 다른 세력 가문과의 혼인을 통한 왕권강화 도모, 근친혼 축소
- 이는 문벌 귀족중심의 정치권력 강화에 영향
- 왕실과의 혼인 등을 통한 문벌귀족층 형성, 고려 전기 지배계층 형성
- 이후 무인집권기 왕실내 혼인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후기까지 고려 왕실 및 원나라 황실과 연결된 가문중심으로 문벌집권체제가 지속화됨

*전기 문벌귀족의 형성과 가문의 권력화

- 고려 전기 지배세력
-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 개경 거주
- 음서제: 왕족, 공신, 5품 이상의 고위관료의 자손은 과거없이 관리등용
- 공음전: 귀족 신분의 경제적 특혜 토지정책
- 경원 이씨가문의 여러대에 걸친 중첩훈인으로 왕권위협
- 폐쇄적 귀족사회의 모순발생-이자겸의 난(1126년)
-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 초래-묘청의 난 (1135년), 무신정변의 발발 (1170년)

*무신정권의 형성과 지배권력의 교체-무신정변은 왜 일어났을까

- 문무 양반사회이나 문반중심의 특권계층 형성
- 문벌 귀족사회의 모순 심화(이자겸의 난 등 권력투쟁)
- 의종의 실정과 무신에 대한 극단적 차별대우
- 1170년 정종부, 이의방, 이고 등 의종을 폐하고 명종 추대-무신정권 수립
- 무신정변 이후 문벌귀족 몰락, 무신정치 집단의 등장
- 무신정권에 대한 반발- 김보당의 난, 서경유수 조위총의 난 등
 - 문신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
- 정변 이후 무신간의 권력쟁탈전 전개
- 이의방, 정종부->경대승->이의민->최충현
- 최씨 무신정권 수립(최충현->아들 최우에게 권력 세습)
- 4대(최충현, 최우, 최항, 최의) 60년간(1196~1258) 최씨무신정권 유지
- 최충현 독재정권 수립, 최우 문반의 우대 활용, 삼별초 구성(야별초가 근거, 좌우별초, 신의군)
- 무신정변의 영향-하극상의 풍조, 무신의 토지침탈, 농민생활 궁핍과 봉기(망이, 망소이, 김사미, 효심의 봉기)
 - 신분해방운동(만적의 난), 삼국 부흥운동 시도
- 몽고의 침략과 대몽항쟁의 전개 및 강화도로의 천도
- 후기 무신정권의 권력 투쟁 전개 즉, 유경, 김준이 최의 살해로 최씨정권 붕괴, 김준 집권
- 임연이 김준 제거, 임유무 집권, 원종에 의해 임유무 제거로 무신정권 붕괴
- 개경환도 및 왕정복고 및 원 간섭 통치기 전개
(1231~1259 걸친 침략전쟁, 이후 70여년동안 간섭통치)
-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자주성 상실과 친원 권문세족의 집권

*무인정권은 왜 새로 왕조를 개창하지 않았을까

- 최씨정권에 의한 왕조교체의 가능성
- 대의 명분의 부족
- 무신세력의 정치력의 부족
- 왕조교체보다 정치적 실권장악에 만족-새로운 시대상이 아닌 권력주도권 구축에 목적
- 새로운 정치구조나 왕조에 대한 비전 부족

*무인집권세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무인의 정치력에 대한 평가와 군부세력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 무인집권세력도 폐쇄적 집단구조 형성-제후국왕의 신분, 공 후 호칭,
 - 음서를 통한 폐쇄적 무인가문권력을 구축
 - 고려후기 권문세족의 일원

* 후기 권문세족의 형성과 친원지배세력 형성

- 고려 말기의 지배세력
- 고려후기 원간섭지배기 친원 지배세력 형성, 초기 문벌귀족과 무신세력도 포함
- 무신정권 붕괴 이후 권문세족이 새로운 지배집단 등장
- 음서로 신분 세습
- 대농장 소유 및 면세혜택
- 친원정책으로 권력기반 유지-원나라 간섭기, 친원 권문세족(기철, 흥다구)
- 고려말 공민왕의 반원개혁과 신진사대부 혁명계층의 등장으로 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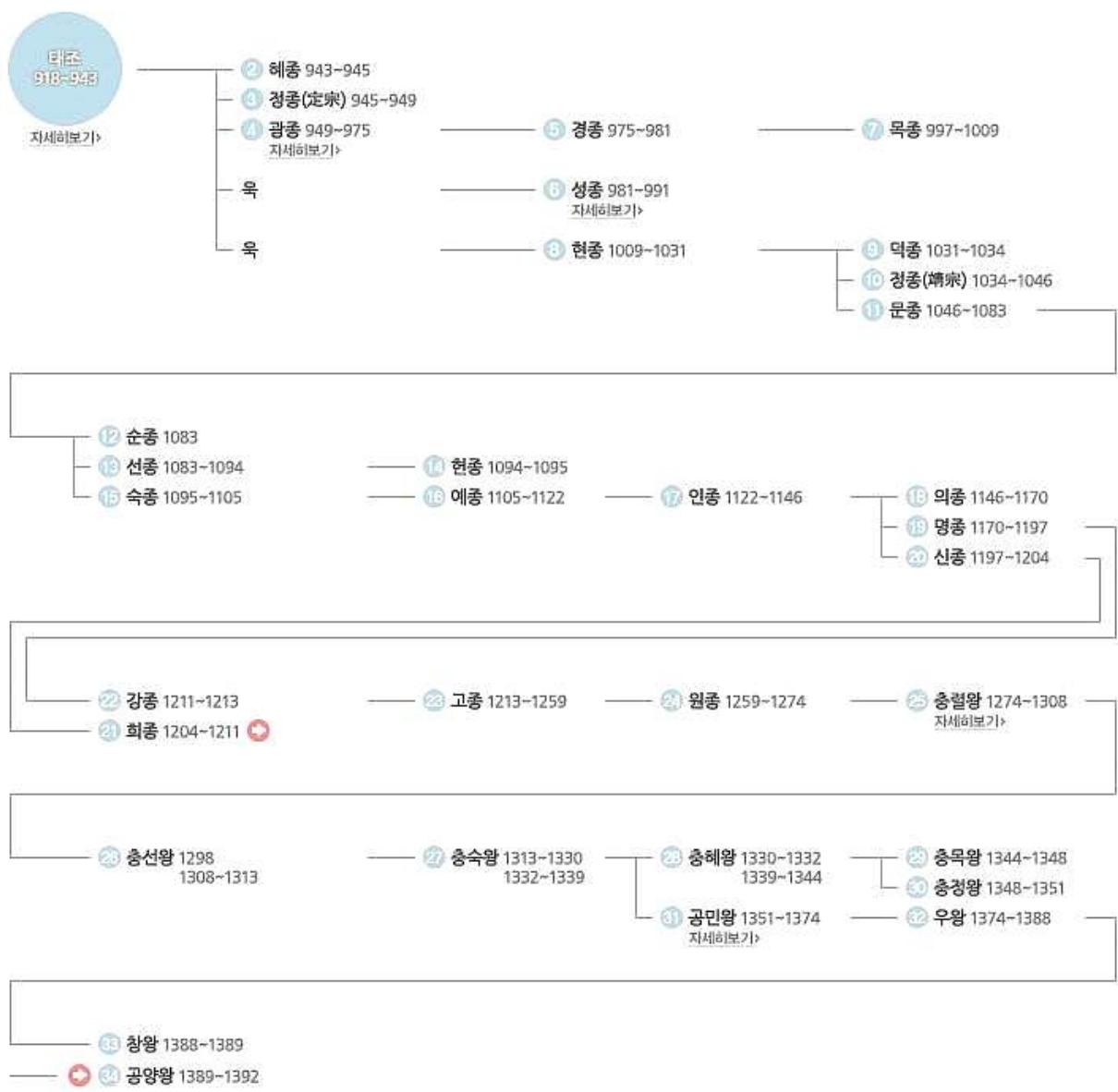
*고려 관료계층의 성격

- 과거제 실시 - 광종시기 도입한 관료채용 정책
- 시험을 통해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 등용
 - 제술과(문학, 정책) 명경업(유교경전) 잡과 승과
 - 시험응시는 양민이상 가능하나 양민은 주로 잡과 응시
- 고려의 과거제는 관료등용의 관문은 되었으나 등용이후에는 과거제보다 음서제의 혜택으로 귀족중심의 지배집단을 폐쇄적으로 유지
- 즉 고려 과거제는 특수인맥집단형성-시험관과 문생의 특수관계 형성, 폐쇄적 집단으로 점차 음서를 통한 권력계승으로 문벌귀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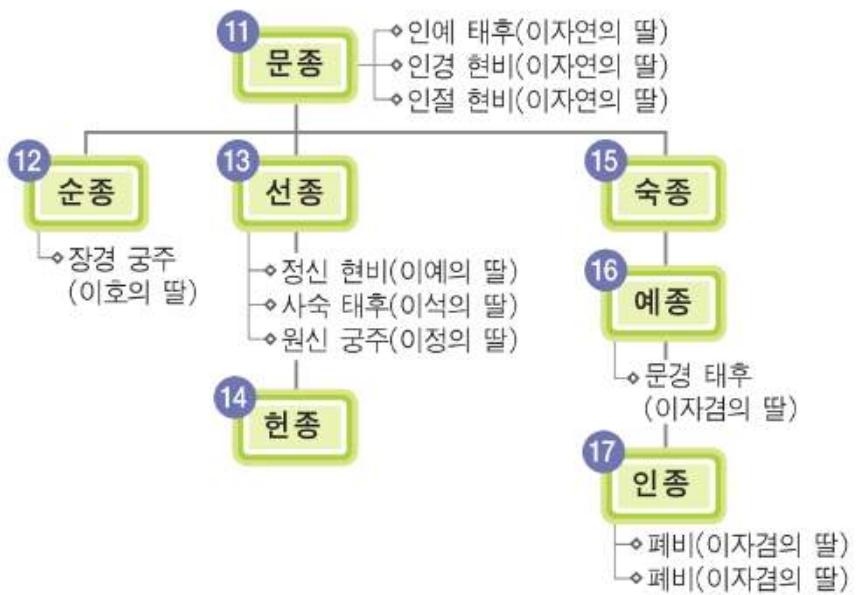
*고려 지배세력의 성격에 대한 이해

- 귀족사회였다는 견해-정복자가 특권층을 형성, 삼국통일 이후 신라시기까지는 귀족사회
 - 고려도 음서제 중심의 고려건국세력이 중심이 되어 특권계층 형성
- 반귀족 반관료제 사회였다는 견해-5품이상 음서제로 특권계층이 형성되었으나
 - 과거제를 통한 새로운 지배세력(관료)의 형성 가능
- 조선왕조의 경우 2품이상 음서제 적용, 과거제를 통한 공익 정치질서 확립,
- 관료제 중심 사회

고려 475년, 918~1392



고려 전기		고려 후기		
918 10C	1018 11C	1170 12C	1270 13C	1351 14C
고려 건국 고려 초기 호족세력	거란 격퇴 고려 중기 문벌귀족	무신정변 무신집권기 무신집권증	개경 환도 몽골간섭기 권문세족	공민왕 즉위 고려 말기 신진사대부
진취적, 개방적 사회 호족, 6두품, 선종 친송정책, 거란배척 태봉, 신라, 당 융합	보수적, 폐쇄적 사회 의천의 천태증 거란과 친선, 여진 정 벌, 금 압력 문벌귀족사회의 모 순 심화 (이자겸, 묘청)	하극상의 혼란기 (농민, 천민의 봉기) 지눌의 조계증 사대부 등장 대몽항쟁(강화도) 무신권력기구 (중방, 도방, 교정도 감)	문화적 침체기 자주성의 상실 신진사대부의 성장 관제 격하(1부 4사)	보수, 개혁의 갈등기 홍건적, 왜구 침략 관제 회복 (2성 6부체제)



경원이씨 왕실과 혼인관계도

무인정권시기

순서	이름	시작년도	완료년도	집권	왕	비고
1대	이의방	1170년	1174년	4년	명종	의종 폐위, 강종의 장인
2대	정중부	1174년	1179년	5년		의종 폐위
3대	경대승	1179년	1183년	4년		
4대	이의민	1183년	1196년	13년		
5대	최충현	1196년	1219년	23년		명종 폐위, 희종 폐위
6대	최우	1219년	1249년	30년	고종	최충현의 아들
7대	최항	1249년	1257년	8년		최충현의 손자
8대	최의	1257년	1258년	1년		최충현의 증손자
9대	김준	1260년	1268년	8년	원종	최항의 측근
10대	임연	1268년	1270년	2년		최항의 측근
11대	임유무	1270년	1270년	1년		임연의 아들



집권자	정치	군사	저항
이의방	중방		김보당의 난 (개령) 서경 유수인 조위총의 난 (서경) 망이, 망소이 난 (공주 명학소) cf. 명학'소'는 추후 충순현으로 승격됨
정중부			
경대승		도방	김사이의 난 (운문) 효심의 난 (초진)
이의인(천민)		도방 폐지	
최충현	교정도감	도방 부활	최충현의 노비인 '만경의 난' --신분해방운동 (새로운 패러다임) 이비, 발좌의 난 (경주) --신라부흥운동과 연결
최우	교정도감 + 정방(인사권) 서방 (문신등용)	도방 + 야별초→ 삼별초	최광수의 난 (서경) --고구려 부흥운동 이연변의 난 (담양) --백제 부흥운동

